

2024 러시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러-우 사태] 제재 학습 효과와 경제회복	6
나. [공급망] EAEU 및 BRICS 중심 공급망 재편	8
다. [수출 품목] 비제재·중소중견 품목 중심으로 재편	10
라. [디지털] 전자상거래 활성화	11
마. [물류] 북극항로 개발과 물류 노선 안정화	12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5
2. 시장 분석	20
가. 시장 특성	20
나. 교역	22
다. 투자 진출	25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8
가. 교역	28
나. 대러시아 투자	31
다. 협력 유망 분야	34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38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9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0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8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50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51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2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경제성장률 '23년 2.8%(추정치), '24년 2.3%(전망치), 러-우 사태 여파 경제침체 이후 회복세

- 러-우 사태로 다소 주춤했던 러시아 경제는 ① EAEU 및 BRICS 등 우호국 중심 공급망 재편 ② 자국 산업 육성 및 수입 대체화 ③ 글로벌 유가 상승 및 내수시장 회복 ④ 제재 학습효과로 '24년에는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
- ('23년 경제성장률) 러시아 경제개발부(+2.8%), OECD(+0.8%), World Bank(+1.6%), IMF(+2.2%), EIU(+0.6%) 대다수 기관이 플러스 성장 예상 ('22년, -2.1% 기록)

〈연도별 러시아 경제성장률〉

(단위: %)

구 분	러 경제개발부	러 중앙은행	OECD	World Bank	IMF	EIU
2023 (추정치)	2.8	2.2-2.7	0.8	1.6	2.2	0.6
2024 (전망치)	2.3	0.5-1.5	0.9	1.3	1.1	0.7

자료: 러 경제개발부, 러 중앙은행, OECD, World Bank, IMF, EIU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백만 명	147.0	147.2	146.9	146.2	145.6	146.6	146.4	-
명목 GDP	십억 달러	1,563.2	1,564.0	1,686.7	1,474.1	1,780.1	2,144.9	1,693.1	1,931.3
1인당 명목GDP	달러	10,654	10,655	11,482	10,082.7	12,225.9	14,630.7	11,561.1	-
실질성장률	%	1.6	2.3	1.3	-3.0	2.9	-2.1	2.8	2.3
실업률		5.4	5.4	4.7	5.9	5.0	4.2	3.1	3.2
인플레이션		4.1	4.0	4.3	4.9	5.3	12.4	7.0	5.1
재정수지(GDP대비)		-2.2	2.6	1.7	-3.8	-0.2	-0.9	-2.1	-1.5
총수출	억 달러	3,571	4,493	4,228	3,371	4,923	5,652	4,840	5,080
(對韓 수출)		120.0	175.0	176.0	124.4	168.95	148.17	-	-
총수입		2,269	2,382	2,438	2,317	2,935	1,944	3,810	3,900
(對韓 수입)		69.0	73.0	72.0	71.6	129.87	63.28	-	-
무역수지		1,302	2,112	1,790	1,054	1,988	3,708	1,030	1,180
경상수지		341	1,142	678	331	1,227	2,401	744	807
환율(러 중앙은행)	달러당 루블	58.53	62.43	65.1	72.32	73.6	68.1	86.0	94.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41.5	358.2	220.2	67.8	640.7	104.4	-	-
외국인직접투자		259.5	132.23	320.8	104.1	386.4	-186.8	-	-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로 작성, 2022년 러 당국 공식 통계 다수 미발표로 총수출·총수입은 IITC Trademap, 투자는 UN통계치로 작성
 자료: 러 경제개발부, 러 중앙은행, World Bank, IMF, ITC Trademap, 러시아 관세청, 현지언론

※ 요약: ① (러-우 사태) 제재 학습효과와 경제회복 ② (공급망) EAEU 및 BRICS 중심 공급망 재편
 ③ (수출 품목) 비제재·중소중견 품목 중심으로 재편 ④ (디지털) 전자 상거래 활성화 ⑤ (물류) 북극항로
 개발과 물류 노선 안정화가 주요 이슈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토대로 포스트 러-우 사태를 대비

가. (러-우 사태) 제재 학습효과와 경제회복

▣ 제재 학습효과에 따른 시장 안정화

- (공급망) 러시아의 우회수입 및 병행수입*으로 주요 원자재 및 완제품 시장 공급 정상화, BRICS 등 우호국 중심으로 러시아의 수출시장 다변화
 * 수입 브랜드 일부에 대해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상표권 등록 없이 유통을 허용하는 제도
- (GDP) 러-우 사태 여파 '22년 -2.1% 기록했던 GDP 성장률은 '23년 들어 2.8%까지 회복 추정, '23년 10월에는 다수 기관이 플러스 성장 예상(+0.6~2.7%)
- (환율) 기준금리 인상('23.10월, 15%), 가스 수출 대금의 루블화 결제, 외화 반출 제한 등으로 달러당 RUB 100 미만으로 방어 중이나, 러-우 사태 이전보다는 루블화 평가절하 현상 지속으로 수입물가 상승 및 구매력 저하 우려
 * 달러당 루블화 평균 환율: ('21년) 73.6, ('22년) 68.1 ('23년) 85.5 (*러 중앙은행)
- (주식시장) 러-우 사태 직후 2,400대까지 폭락했던 MOEX지수*는 '23.10월 3,200대로 회복, 러-우 사태 이전 수준인 3,500대로 회복 기대
 *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scow Exchange)에서 거래되는 러시아 대표 주가지수

▣ 주요 경제지표 (생산·소비·고용·투자·무역) 회복세 ('23년)

- (생산) '23년 상반기 산업생산은 제조업(+11.3%), 건설업(+9.8%), 광업(+1.1%)에 힘입어 증가세 지속, 구매관리자지수(PMI) 또한 연간 평균 52로 양호한 수준

- (소비)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비교적 가파른 인플레이션 (7-7.5%)으로 소비심리 일부 위축되고 있지만, 소매 판매는 회복세
- (고용) 군 동원령, 비우호국 인력 유출, 인근국 외노자 이탈(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로 역대 최저 실업률(23.10월, 3.2%) 기록 중
- (투자)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외국기업의 대리 투자 크게 감소, 정부 투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지속되는 기준금리 인상(15%)으로 기업투자 경직
- (무역) 대우호국 수출 증가로 수출은 유지, 병행·우회수입으로 수입은 증가, 우호국과의 교역 급상승(러-중국 +32%, 러-인도 +237%, 러-브라질 +33.7% 등)

▣ (참고) 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현황

-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확대 공조 차원에서 여타 동조국의 통제 대상 품목 중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798개의 통제 품목을 지정(23.4.28부 기준 57개에서 798개로 확대)
* (美) 1,234개, (日) 704개, (EU) 1,500여개 수출통제 품목 지정

〈'23.4.28. 수출통제품목(상항허가품목) 내역〉

기 존	개정 후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	산업기계 (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장비, 자동차 및 부품 (완성차는 5만불 초과가 해당), 톨루엔 등 일부 화학제품, 스테인리스 등 일부 철강제품,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일부 전자부품, 양자컴퓨터 및 관련 부품 등 798개 품목

* 상항허가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

〈對러 수출통제 품목 예시〉



자료: 전략물자관리원

- (판정절차) 전략물자관리시스템 「對러/벨 상황허가 품목—HSK 연계표」를 참고, 전략물자관리원이 요구하는 절차에 맞춰 '자가판정' 혹은 '전문판정'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무허가 수출 시에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벌의 대상
 - 전문판정 시에는 'HS코드·형식/규격·용도·사용처'를 포함한 품목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서류 보안이 요구될 수 있음
 - * 전략물자관리원: russia.kosti.or.kr(통제품목 조회), yestrade.go.kr(허가신청, HSK 연계표 확인)
 - * 「상황허가 품목 - HSK 연계표」에 없는 물품이라도, 기술적 사양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가판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판정을 통한 확인 필요
- (변동 가능성)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미국·EU의 추가 제한 조치와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동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민감품목을 취급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 필요

나. [공급망] EAEU 및 BRICS 중심 공급망 재편

▣ EAEU 역내 교역 강화

- (교역액 증가) '23년 상반기 EAEU 역내 물동량은 '21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한 1조 4413억 달러, 러시아 내 주요 생산거점 및 투자가 카자흐스탄 등으로 이동하면서 품목 이외에도 인적·자본 교류 활성화
- (품목 다변화) 에너지·소비재 분야 중심에서 휴대폰·자동차·가전제품 등으로 품목 확대, 대러 제재 및 물류 애로에 대응하는 러시아 정부의 우회 수입
- (인증·관세 통일) 회원국 간 통합관세, 상품·서비스·자본·인적자원 자율 이동 가능 및 제3국과 공동 FTA 체결 방식으로 하나의 큰 시장 형성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 회원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
- 경제규모: 세계 무역규모의 2.7%, 세계 GDP의 3.2%(2조 6014억 달러)
 - 인구 1억8500만(세계인구 2.4%), 석유(전세계의 15%), 가스(전세계의 20%), 전력(전세계의 4.7%)
- 단일통화 등 완전한 경제단일국가 형태인 EAU 이전 단계 → EAEU는 20년 간 러가 펼쳐온 정치·경제 통합의 과정
 - 현재는 경제적 통합이 진행되지만, 향후 정치·군사 등의 분야 통합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



▣ BRICS 등 우호국 중심 교역 강화

- (브라질) 러시아의 에너지 및 석유제품 대거 수입, '23년 상반기 대러시아 니켈 및 경유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100%, 64% 증가
- (인도) 인구 증가, 산업단지 가동 위한 러 원유 수입 급증, 러-인도 교역액 사상 최대 218억 달러 기록('23.1-5월), 러시아의 2번째로 큰 수출시장 (*1위-중국)
- (중국) 러 최대 교역국, 러-중 교역액은 29.5% 증가한 1,764억 달러 기록('23.1-9월), 연말까지 2,000억 달러 초과 예상 상품·에너지·투자·안보 다방면에서 교류 활성화
- (남아공)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체결('13년)과 더불어 친러 노선 유지, 러시아는 남아공에 원자력발전소, 지하자원 개발, 도로 인프라 등 투자 지속
- (사우디·이란·UAE·아르헨티나·이집트·에티오피아) BRICS 신규 가입 승인('23.8월), 석유, 가스, 자동차, 육가공류, 커피, 의류 등 새로운 밸류체인 생성 예상

다. [수출 품목] 비제재·중소중견 품목 중심으로 재편

▣ 비제재 대표 품목, 소비자 대러시아 수출 지속

- (시장 여건 양호) 러-우 사태 영향 미미, 대다수 바이어는 “큰 차이 못 느낀다”는 반응과 더불어 경제회복에 따른 최종 소비자의 구매력 회복 기대, 한류 지속으로 K-브랜드의 이미지는 여전히 긍정적이며 문화 콘텐츠와의 ‘마케팅 믹스’가 효과적
- (CIS내 최대 시장) '22년 대CIS 소비자재(5대) 전체 수출액 12.2억 달러 중 대러 수출은 7억 달러로 57%를 차지, 러시아는 CIS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22년 대CIS 소비자재 수출액〉

(백만 달러, %)

품목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CIS 기타 8개국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농수산식품	225.1	59.1	24.0	6.4	6.3	1.7	124.9	32.8
생활용품	138.1	59.2	7.2	3.1	50.6	21.8	37.1	15.9
의약품	43.0	43.9	9.5	9.7	2.5	2.6	42.9	43.8
패션의류	8.4	24.1	1.7	4.8	1.9	5.2	22.9	65.8
화장품	285.7	60.1	48.8	10.3	7.9	1.7	132.7	27.9
합계	700.3	57.3	91.2	7.5	69.2	5.7	360.5	29.5

자료: kotra.or.kr/bigdata, 주: 해당품목의 대CIS 수출 중 대러시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 (수출 지속) 우리나라의 '23년 상반기 대러시아 소비자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러-우 사태 이전의 수준 유지
- * '23년 상반기 수출액 기초화장품(70%), 기타화장품(29.7%), 두발용 제품(36.4%), 의약품(28.6%) 증가

▣ 중소중견 기업 중심의 비제재 품목 수출 증가

- (비제재 품목) 자동차 윤활유, 자동차 타이어, 의료기기, 의약품 등 비제재 품목이지만 서방 기업의 철수로 공백이 발생한 품목을 중심으로 반사이익 실현
- (문화 콘텐츠) 미국·유럽의 대러 콘텐츠 공급 중단 및 현지 한류와 맞물려, 한국 콘텐츠 진출 활성화 증으로, 게임·웹툰·음원 등의 수출 실현 중

〈'23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소비재 및 비제재품목' 대러시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3년 상반기 수출액(증가율)	품목	'23년 상반기 수출액(증가율)
화장품	166(70%)	의료기기	72(11.8%)
기타화장품	15(29.7%)	의약품	27(28.6%)
두발용 제품	18(36.4%)	커피조제품	23(41.4%)
자동차 윤활유	175(220%)	김	21(67.5%)
자동차 타이어	42(235%)	운반하역기계	161(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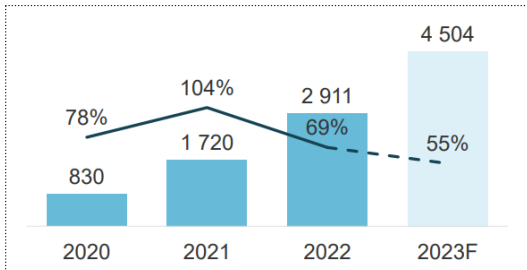
자료: KITA, 품목: MTI 6단위, 증감율: 전년 동기 대비

라. [디지털] 전자상거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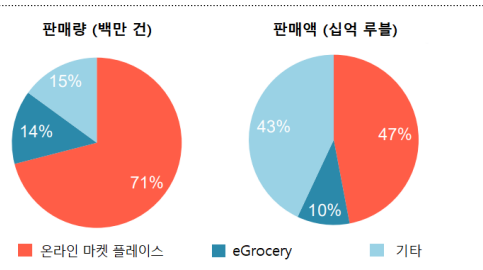
▣ 온라인 플랫폼 통한 소비 지속

- (규모 성장)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3년 7조 4천억 루블 (7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 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지속 성장 중
* 2023년 러시아 월 평균 인터넷 사용자 1억 2,760만 명(전체 인구의 약 87%)
- (범위 확대) 전자제품, 가정용품, 의류·신발, 화장품 같은 내구재 중심에서 배달음식·소비재 등으로 품목 확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중년층에서도 이용률 증가

〈2020-2023년 온라인 상품 주문량(단위: 백만 건)〉



〈형태별 판매액·판매량 현황〉



〈러시아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종합 상품)		e-Grocery(식품 위주)	
WILDBER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의류 및 신발, 화장품 ■ 2022년 매출액: 32억 9,606만 달러 	Самока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식품 및 생필품 ■ 2022년 매출액: 7억 854만 달러
AliExp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가전제품, 가정용품, 의류 ■ 2022년 매출액: 1억 6,982만 달러 	Яндекс Лавк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식품 및 생필품 ■ 2021년 매출액: 3억 909만 달러
OZ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가정용품, 가전제품, 화장품 ■ 2022년 매출액: 27억 1,581만 달러 	ВКУСВИЛ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식품 및 생필품 ■ 2022년 매출액: 21억 1,341만 달러
Марке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가정용품, 식품, 가전제품 ■ 2022년 매출액: 10억 5,183만 달러 	СБЕР МАРКЕ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식품 및 생필품 ■ 2022년 매출액: 4억 8,618만 달러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과 간편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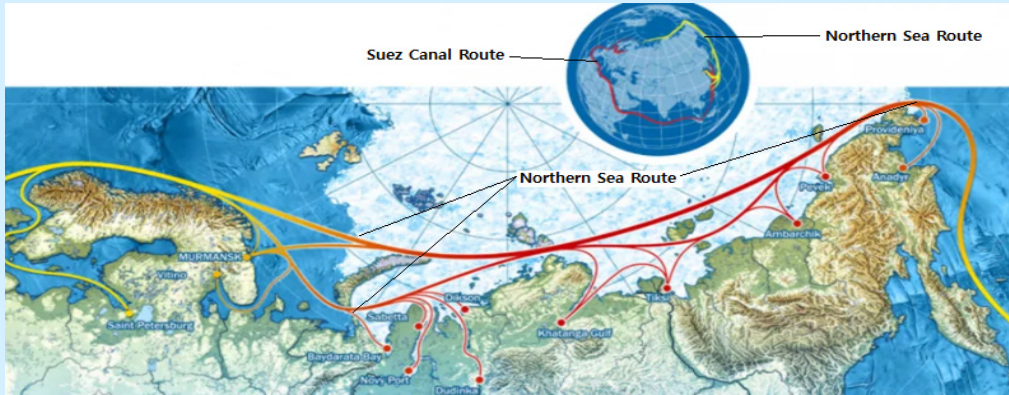
- (정책방향) ‘러시아 중장기 경제계획 2023(‘20.7월 러 대통령 발표)’ 중 5대 국가 목표 안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포함
 - 2030년까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보급 2배 증가계획, 민간 인터넷 보급률 97%로 향상, '19년 대비 IT 솔루션 관련 투자를 4배까지 끌어올릴 계획
- (간편결제) 거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카드 연계 간편결제(원클릭) 가능, 소비자는 거주지 주변 각 플랫폼의 거점(우체국, 픽업 지점)에서 픽업하거나 소정의 추가비용을 내고 문 앞까지 배달 요청 가능(평균 2-3일 소요)

마. [물류] 북극항로 개발과 물류 노선 안정화

▣ 북극항로 개발 프로젝트(2018년~2024년) 추진

- (현황) 북극항로는 1978년 5월부터 2척의 쇄빙선이 정기 화물 운송 시작, 2016년부터 운송량이 급격히 늘어 2022년 기준 3,403만톤 달성
 - * 북극 항해 가능기간 8-10개월, 운송 품목은 원유 및 정유 제품(770만톤), LNG(1,960만톤), 석탄(22만톤) 등
 - ** 러-우 사태 이후 동 노선을 활용한 러시아발(發) 아시아향(向) 해상 운송량 80% 가량 증가 추산
- (전망) 쇄빙 기술의 발달 및 항만 인프라 개발 등 총 5,875억 루블(약90억 달러) 규모 투자로 동북아 물류 허브 역할 기대, '24년에는 운송량 7,400만 톤 도달 전망,
 -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23.10월)에서 러 대통령은 “2024년부터는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 일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각국에 노선 개발 협력을 요청

〈러시아 북극 항로(NSR) 개요〉



- 시베리안 해안(북극)과 극동을 따라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항로로, 항해 가능 기간은 1년에 8-10개월
- 북방 항로 동쪽은 약 3미터 두께의 얼음이 있어, 쇠빙선만 항해 가능
- 수에즈 운하를 통한 아시아-유럽 노선보다 항해 거리 9,000km, 비용 1백만 달러 절감 가능
- 쇠빙 기술의 발달과 지구온난화로 매년 물동량 증가 전망

▣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INSTC(국제남북회랑) 등 물류 노선 안정화

- (TSR) 모스크바와 극동지역을 잇는 러 최대 횡단철도로 러-우 사태 직후 일시적 적체 현상 있었으나 '23년 하반기 운송 기능 정상화
- (TCR) 중국 동부-중앙아시아-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러시아 중부)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최근 늘어나는 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 3국 교역에 중추적 역할
- (INSTC) 인도-이란-아제르바이잔-모스크바로 연결되는 종단철도로 TSR·TCR의 대체 노선으로 주목,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호국 중심의 안정적 물류 노선
- (기타) 블라디항 적체 해소('22년 대비 80%)로 동북아발 상품공급 안정화, 상트항 정상 운영, 흑해(노보로시스크항 등) 운항은 전쟁 리스크 상존('23.10월)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대내외 이슈 불구 정치적 안정 유지 및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 ※ (경제) 경제성장률 회복세 및 투자는 정부·우호국 중심
- ※ (산업) 수입의존 산업 다수 및 인프라 투자 지속
- ※ (정책) 자국산업 육성정책, ESG는 초보적 단계

가. 정치 환경

▣ 푸틴 대통령 체제 유지

- (집권여당) 러시아 집권 여당은 '통합 러시아당'으로 2021년 9월 시행된 총선에서 450석 중 323석을 차지(72%), 압도적인 승리로 푸틴 대통령의 입지 강화*
 - * '21.3월에는 2000년에 집권을 시작한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 '24년 3월 17일은 제8대 러시아 대통령 선거로 푸틴 대통령의 출마 및 재집권 여부에 이목 집중
- (지방선거 결과) '23.9월에 러시아 전역에서 치러진 시장 및 주지사 선거에서 소바닌 현 모스크바 시장 재선 성공(득표율 76%), 새로 편입한 '루간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에서도 선거 단행
 - * 러시아는 '22.9월에 상기 점령지 4곳에 대한 합병 주민투표 실시, 침입 시 강력한 대응 예고
- (지지도) 장기간 전쟁 지속으로 인한 피로감, 부분 동원령 발표('22.9월) 이후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는 77%가량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
 - * '23.6월에는 용병그룹 '바그너'의 무장반란이 있었지만,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사태 일단락, 추후 무장반란의 주동자였던 '프리고진'은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중 비행기 폭발로 사망 ('23.8월)

▣ 주변국과의 관계

- (우크라이나) 적대적 관계 지속,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선언('23.7월) 및 반복적 드론 공격과 그에 따른 러시아의 보복 반복, 국제사회 여론전 지속
- (중국) 푸틴의 방중('23.10월)과 더불어 안보·외교·경제·물류 등 다분야에서 협력 강화하며 우호적인 관계 유지, '23년 양국 교역액 2000억 달러 초과 예상
- (북한) 김정은의 방러('23.9월)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국제사회는 러→북 항공우주 기술이전 및 식량 제공, 북→러 재래식 무기 및 탄약 제공을 우려
- (EAEU) 벨라루스·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과 우호적 관계 유지, 아르메니아의 탈러시아 움직임('23.9월~)에는 단호한 입장 유지

나. 경제 환경

▣ 2024년 러시아 경제 전망

- 러-우 사태로 흔들렸던 러시아 시장은 ① EAEU 및 BRICS 등 우호국 중심 공급망 재편 ② 자국 산업 육성 및 수입 대체화 ③ 글로벌 유가상승 및 내수시장 회복 ④ 제재 학습효과로 '24년에는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

〈러시아 경제 지표 및 전망〉

주요지표	단위	2021년	2022년	2023년(추정)	2024년(전망)
경제성장률	%	2.9	-2.1	2.8	2.3
총 수출	억 달러	4,923	5,652	4,840	5,080
총 수입		2,935	1,944	3,810	3,900
무역수지		1,988	3,708	1,030	1,180
인플레이션	%	5.3	12.4	7.0	5.1
유가 (브렌트유)	배럴당	70.6	96.1	83	86
환율	달러당	73.6	68.1	86.0	94.0

자료: 러 경제개발부, 러 중앙은행, ITC Trademap

▣ 외국인 투자 진출 동향

- (서방 제재) 해외송금 제한, 특정 법인·개인과의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신규 투자 저조, 중국 등 우호국 중심의 투자 확대, 서방 기업의 기 투자금액 철회
- (러시아의 대응) 비우호국 기업 대상 자산매각 조건 강화, 철수한 기업의 공장 재가동, 자국 브랜드 육성 통한 시장 공백 대체 노력

〈외국기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시기	주요내용
'22.10월	외국기업 자산 매각가격 저평가(50%), 대금의 5-10% 세금성 납부금 부과
'23.4월	비우호국 기업의 자산을 임시로 관리(임대, 저당권 설정 등) 가능 조치
'23.5월	비우호국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비우호국 기업의 배당금 일정 부분 제한
'23.8월	'이중과세 방지 협정' 일시중단, 일부 비목에 이중과세 가능성(양국 정부에서 동시 과세)

▣ 러시아-우호국/비우호국 대외 교역구조 변화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대외 교역은 서방 등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비우호국을 중심으로 급감, 우호국인 중국, 터키 등과는 뚜렷한 상승세
 - (비우호국) 러시아 전체 수입의 50% 이상이 미국, 독일 등 비우호국으로부터 수입이었으나 IT·의료·화학 등 하이테크 분야의 수입이 줄어들거나 대체 중
 - (우호국) 중국과 터키와 교역량은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물류·결제 혼선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이후 회복기에 접어들어 꾸준히 증가 추세

다. 산업 환경

▣ 여전히 수입 의존적 산업 다수

- 러시아의 자국 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식품가공업 등 일부 산업에서만 수입 대체화 성공, 의약·IT·자동차·소비재 산업 등에서 높은 수입의존도 관찰

〈러시아의 주요 수입 의존적 산업〉

산업	주요 이슈
① 의약품	2021년 138억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했고 그 중 약 70%가 EU, 미국, 영국 등에서 수입, 제약 산업 또한 수입 원료 및 수입 장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원료의 해외 의존도는 약 22%로 추정
② IT·통신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러시아 공공기관의 의존도는 65%(ERP, CAD/CAM/CAE, MES, 오피스 제품군 등), 러시아 반도체 장치의 자국 내 생산은 핵심 수입 부품 없이는 어렵고, 통신 부문에서는 Cisco, Ericsson 및 Nokia와 같은 다수 주요 해외업체가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내 사업 및 장비 판매 중단
③ 자동차	러시아에 투자한 많은 비우호국 외산 브랜드 기업들이 부품 부족 등으로 운영을 멈추거나 철수하고 있고, 자국 혹은 수입 부품으로 공장 일부 재가동 중이지만 러시아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
④ 소비자재	러시아 내 일상생활용품(의류, 신발, 가전제품, 아동장난감, 휴대전화)의 수입 비중은 약 75%이고, 화학제품(향수, 화장품, 세제 및 청소용품 등) 부문에서는 44.7%, 식품 부문은 27%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⑤ 베어링	베어링 수입 비중은 약 40%로 미국과 EU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베어링 공급을 제한한 후, 자동차 산업·야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 부품인 베어링의 공급 부족 현상 발생

■ 러시아 프로젝트 환경

- 러 정부, '2019~2024년 13개 국가 프로젝트'에 따라 3,900억 달러 투자계획
 - 포스트 러-우 사태 대비 건설업, 조선업 중심 신규 프로젝트 투자 진출 준비

〈2019-2024 국가프로젝트 개요〉

주요 분야	세부 프로젝트	투입 예산	예산 비중
경제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지역 연결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발전, 중견중소기업 지원 ■ 디지털 경제, 고용지원, 생산 효율화, 대외협력 및 수출 	1,553억 달러	39.3%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교통 시설 개선, 주거시설 및 도심 환경개선, 환경 보호 	1,523억 달러	38.5%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교육, 문화, 출산율 향상 	876억 달러	22.2%

라. 정책·규제 환경

■ 러시아의 '탄소중립 2050' 및 ESG

- (경과) ('18년) '녹색 금융' 개념이 처음 도입, ('19년)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서는 ESG 채권 취급을 시작했으며, ('20년) 정부에서는 '기후환경 프로젝트'라는 별도 분류체계를 정책 수립에 도입, ('21년) 아젠다로서 민간시장에서 논의 시작, ('23.10월) 러 대통령,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기후 독트린' 승인

- (현황) 유럽 대비 초보적 단계로,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 그리고 일부 금융권으로 그 수행 주체가 한정,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목표('20년 러 경제개발부)이나, 구체적인 법령은 사할린주에만 한정 시행
- (ESG 사례)

구분	주요내용
Environmental	■ 바이칼 호수 인근에 위치한 EN+(러 대형 알루미늄 생산회사)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춰 저탄소 알루미늄 제품 개발, 호수 보호 캠페인 진행
Social	■ '20.5월에 노릴스크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 과정 중 발생한 오염물질 유출사고로 인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 Norilsk Nickel(러 최대 니켈 생산회사) 등이 앞장서 사회구성원과 소통
Governance	■ 러 연방, 기업으로 하여금 녹색기술 도입 촉구를 위해 'Clean Air' 및 'Best Available Technologies' 연방 프로젝트 추진('20년)

- (전망) 러-우 사태 및 제재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과 ESG 정책 자체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당분간 현 상황에 머물 것으로 예상
* 러 과학 아카데미 연구소, 탈탄소화를 위한 비용 최소 458조 루블(약 4.5조 달러) 예상

▣ 자국 산업 육성, 에너지 수출 의존도 감소 노력

- (목적) 국내 산업 육성 및 수입 제품들의 '생산 현지화' 통한 투자 유치·고용 창출·내수 활성화 더 나아가서는 기술의 완전 이전 및 자체 생산화를 목표
* 러 내 가동 중단된 다수의 글로벌 자동차 공장(도요타, 닛산, 르노, 폭스바겐 등) 러시아 및 우호국 기업에 의해 점진적 재가동 중, 높은 단계의 생산 현지화(CKD 등)를 추진 중
- (분야) 전자, 기계, 의료, 식품, 화학, 조선 등 639개 분야 수입 대체화 추진 중, 자원개발 중심에서 정유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원 정책 전환 중
* 천연가스의 액화 기계설비 경우 수입의존도가 80%에 도달
- 최우선 수입대체산업으로는 ①의약품 ②IT·통신 ③자동차 ④소비재 ⑤초소형 전자공학 제품 ⑥의료기기 ⑦조선 ⑧화학가공이 꼽힘

- ※ (시장 특성)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석유가스 의존도 다대
- ※ (수출입) 우호국 중심으로의 교역구조 변화 및 서방 사회의 제재에 탄력적 대응
- ※ (투자) 다수 글로벌 기업의 이탈 및 정부·우호국 중심 투자로 재편

가. 시장 특성

▣ 시장 개요

- 영토: 1707만km² (세계1위, 한반도의 77배, 러시아 내 11개 시간대)
- 인구: 1억 4,671만 명 ('23년)
 - 모스크바: 1,310만 명, 상트페테르부르크: 560만 명, 노보시비르스크: 163만 명
 - 100만 명 이상 도시: 16개
- '22년 GDP: 2조 1,449억 달러, 1인당 GDP: 1만 4,630달러
- 경제성장률: ('21) 2.9%, ('22) -2.1%, ('23) 2.8%(예상)
- 주요 산업 : 석유가스, 농림업, 수산업, 철광석·니켈 등의 자원 개발 등
- 연 교역: ('21년) 7,858억 달러, ('22년) 7,596억 달러, ('23년) 8,650억 달러(예상)



- (거대시장) 러시아는 세계 1위 영토 보유와 세계 5위 경제 규모(구매력 기준), 세계 13위 소비 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설을 통해 1억 8,500만 인구와 GDP 2조 6,014억 달러의 단일 시장 형성
 - * EAEU: '15.1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 구성으로 창설된 경제연합으로 상호 무관세 교역 및 인력이동 가능
- (지정학적 위치) 동쪽으로 한반도와, 서쪽으로는 유럽과, 남쪽으로는 중국 및 중앙아시아 그리고 코카서스 3국과, 북쪽으로는 북극해와 접하는 유라시아 교역의 중심, 러시아의 동방정책(극동지역 개발)은 한반도와 밀접한 연관
 - 러 영토는 대서양(발틱해, 흑해, 아조프해)와 태평양(베링해, 오호츠크해, 한국 동해)에 접해있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극동지역-유럽(발트)을 연결
- (전략적 가치) 전통적으로 수학, 물리학, 화학, 우주항공 등 기초 과학기술이 세계적으로 발달해왔고, 응용기술과의 접목 시 산업영역에서의 활용 잠재성이 큼
 - * 국내 벤처기업의 레이저치료기, 한국전기연구원의 복강경 시술 장비 등도 러시아의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킨 바 있음

▣ 자원 주도 경제

- (매장) 주요 자원별 세계 비중 : 천연가스 22.7%(세계 1위), 다이아몬드 46.2%(세계 1위), 철광석 12%(세계 2위), 원유 5.1%(세계 7위), 석탄 15.1%(세계 2위), 금 13.1%(세계 2위) 등 기초자원 풍부 (단순 매장량 기준)
 - 이 밖에 희토류, 니켈, 마그네슘 등 현대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원 매장량이 많고 자원 개발 광산 2만개 이상으로 개발 및 생산이 활발함
- (수출)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수출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반대로 말하면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2017년-2022년 러시아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출 현황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

연도	원유 (HS 코드 2709.00)		석유제품 (HS 코드 2710.00)		천연가스 (HS 코드 2711.21)		총 수출액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2017	933	25.9	582	16.2	381	10.6	1,896
2018	1,292	28.7	782	17.4	491	10.9	2,565
2019	1,214	28.6	669	15.8	416	9.8	2,299
2020	724	21.4	453	13.4	252	7.5	1,429
2021	1,101	22.3	700	14.2	555	11.3	2,356
2022	1,470	25.3	754	13	472	8.14	2,696

자료: 러시아 관세청, ITC Trademap

나. 교역

▣ 러시아 대외교역 현황

- (전체) 비우호국과의 교역 감소로 2022년 러시아의 총교역량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7,596억 달러 기록, 우호국 중심의 교역 구조로 재편 진행 중
- (수출) 루블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 및 대우호국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로 2022년 수출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5,652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서방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제한 등으로 10% 내외 감소 전망
- (수입) 서방의 대러 수출 제한 조치로 2022년 수입은 전년 대비 33.7% 감소한 1,94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병행·우회수입 및 우호국 중심의 대체 공급선 확보로 전년 동기 수준으로 회복 전망

〈러시아 대외교역 변화〉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3,571	4,493	4,228	3,371	4,923	5,652
(증감률)	(25.26)	(25.82)	(△5.9)	(△20.27)	(46.04)	(14.81)
수입	2,269	2,382	2,438	2,317	2,935	1,944
(증감률)	(24.69)	(4.98)	(2.39)	(△5)	(26.67)	(△33.76)

자료 : ITC Trade Map

- (교역추이)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유럽 등 기존 수출국들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중국 등 우호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채워가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유가 변동, 국제사회의 추가 대러 제재 확대 등이 러시아 대외 무역의 주요 변수
 - 2022년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량은 1,902억 7,162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0.6% 증가했고, 튀르키예와의 교역량도 681억 9,697만 달러로 96.3% 증가함
 - * 2023년에는 중국·브라질·인도·튀르키예 등과의 교역량 증가
 - 반면, 2022년 비우호국과의 교역량은 미국(-54.7%), 폴란드(-25.7%), 한국(-22.6%), 독일(-22.2%) 등 눈에 띄게 감소하였음

▣ 교역(수출입) 주요 제재 현황

- (서방의 대러제재) (물류) 러 항공·선박의 자국 영토 운항 제한 및 글로벌 항공사·선사 러시아 노선 중단('22.3월), (금융) 러시아 주요 은행 SWIFT 배제로 국제송금 애로('22.3월), (수출) 미국·EU의 대러 전략물자 및 비전략물자 중 군수용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수출 제한('22.3월~), (기타) 미국·EU의 영토 내 러시아 법인·개인 자산동결, 거래제한 조치('22.3월~) 등
- (한국의 대러제재 동참) (금융)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발표('22.3월), (물류) 러시아 직항노선 중단('22.3월), (수출)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품목 확대(57개 →798개, '23.4월) 등 주요 제재에 동참 중
- (러시아의 대응) (수출) 국외 수출금지·제한품목 발표(572개, '22.3월), (투자) 러시아 내 비우호국 외국기업 자산 매각 절차 통제/관리('22.10월~), 비우호국 대상 이중과세 방지 협정 일시 중단('22.8월), (금융) 비우호국 외국인 외화 송금 및 인출/반출 제한('22.3월~) 등

〈러시아-주요국 교역 금액〉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국가	2021	2022	증감
1	중국	145,692	190,272	30.6
2	튀르키예	34,735	68,197	96.3
3	독일	58,807	45,734	△22.2
4	이탈리아	31,125	37,365	20.1
5	네덜란드	29,730	25,506	△14.2
6	폴란드	28,904	21,472	△25.7
7	한국	27,335	21,145	△22.6
8	프랑스	19,577	19,771	1.0
9	일본	22,005	19,637	△10.8
10	벨기에	14,404	17,338	20.4
11	미국	37,088	16,786	△54.7
12	체코	11,320	12,777	12.9
13	헝가리	6,337	11,024	74
14	그리스	5,313	9,990	88
15	브라질	7,286	9,826	34.9

자료: ITC Trade Map

〈러시아의 주요 수출국가〉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국가	2021	2022	증감
1	중국	78,142	114,149	46.1
2	튀르키예	28,959	58,853	103.2
3	이탈리아	22,053	30,718	39.3
4	독일	27,322	30,192	10.5
5	네덜란드	21,904	21,578	△1.5
6	폴란드	20,114	16,653	△17.2
7	프랑스	11,974	16,529	38
8	미국	30,701	15,071	△50.9
9	일본	14,145	14,998	6
10	한국	17,352	14,817	△14.6
11	벨기에	9,227	13,518	46.5
12	체코	6,999	11,225	60.4
13	그리스	5,089	9,825	93.1
14	헝가리	4,269	9,643	125.9
15	슬로바키아	6,587	8,628	31

자료: ITC Trade Map

〈러시아의 주요 수입국가〉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국가	2021	2022	증감
1	중국	67,550	76,123	12.7
2	독일	31,484	15,541	△50.6
3	튀르키예	5,776	9,343	61.8
4	이탈리아	9,072	6,646	△26.7
5	한국	9,983	6,328	△36.6
6	폴란드	8,789	4,819	△45.2
7	일본	7,861	4,640	△41
8	네덜란드	7,826	3,928	△49.8
9	벨기에	5,177	3,820	△26.2
10	프랑스	7,603	3,243	△57.3
11	스위스	3,690	3,179	△13.9
12	아르메니아	794	2,365	197.9
13	핀란드	4,361	2,181	△50
14	오스트리아	2,423	1,938	△20
15	미국	6,387	1,715	△73.1

자료: ITC Trade Map

다. 투자 진출

▣ 외국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진출 현황

- (러-우 사태 영향) 다수 글로벌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이탈 및 운영 일시 중단
 - 글로벌 기업 526개 철수,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자발적 사업 축소 (23.6월, 예일대 경영대학원), 주요 국제 브랜드 140개 중 32개(23%)는 영업 전면 중단, 52개(37%)는 러시아 경영진에게 매각, 55개(40%)는 영업 일시 중단 (23.6월, Nikoliers 컨설팅사)
 - 해외 수입 브랜드의 임대 계약 감소에 따른 모스크바 쇼핑센터 공실률은 14.5%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23.6월)

〈주요 외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철수사례〉

기업명	조치내용	산업	국가
아디다스	사업 중단	의류/신발	독일
시스코	러시아 사업 순차적 종료	IT	미국
포드	철수 및 자산 매각 결정	자동차	미국
맥도날드	철수 및 자산 매각	패스트푸드	미국
닛산	러시아 시장 철수	자동차	일본
오비아이	철수 및 자산 매각	공구	독일
르노	자산 매각	자동차	프랑스
지멘스	러시아 시장 철수	전력/운송	독일
스타벅스	러시아 시장 철수	음료/커피	미국
toyota	생산 및 차량 수입 중단	자동차	일본

자료: 예일대 경영대학원

- (외국인직접투자) '13년 연 500억 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14년 크림(크림) 반도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급락한 이후 '16년부터 회복세에 있었지만,
 - '22년 러-우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 및 그에 대응하는 러 정부의 비우호국 기업 대상 각종 제한 조치로 투자 역조 현상(투자금 회수) 가속

〈대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총 투자액	320.8	142.5%	104.1	-67.5%	386.4	271.2%	-186.8	-148.3%

자료: UN 통계자료

- (국가별 대러시아 투자) 누적 기준 국가(지역)별로, 키프로스, 바하마, 룩셈부르크, 영국, 네덜란드 등 오프쇼어 투자가 대부분 차지, 한국은 2022년 1월까지 누적 기준 17위

〈대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Top10 및 한국순위〉

(단위 : 백만 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1	키프로스	네덜란드	키프로스	영국	키프로스
2	바하마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영국
3	룩셈부르크	스위스	영국	홍콩	아일랜드
4	싱가포르	싱가포르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5	영국	버진아일랜드	홍콩	프랑스	카타르
6	스위스	프랑스	프랑스	버뮤다	저지
7	버뮤다	바하마	카타르	저지	바하마
8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바하마	버진아일랜드	홍콩
9	프랑스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바하마	버뮤다
10	저지	저지	버뮤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	(25위) 한국	(23위) 한국	(23위) 한국	(17위) 한국	(17위) 한국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2022년부터는 통계자료 미발표, 주: 누적액 기준

▣ 러시아 정부의 관련 정책

- (투자철수 특별 절차) 비우호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철수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정부 ‘외국인투자통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시장 가치의 50% 이상 절감된 가격으로 매각가격 책정, 매각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거나, 대금의 5~10%를 러시아 연방에 자발적으로 납부하게끔 조치
 -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안정적인 러시아 시장 철수를 위해, 장기적인 리스크가 있는 대금의 분할 수령보다는 대금의 5-10%를 정부에 납부하는 방법 선택
- (자산매각 허가신청 프로세스) 자산매각 절차는 매각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산업별 주무부처 서류 제출, 외국인투자통제위원회 서류 제출, 외국인투자통제위원회 심의 결정 등으로 이루어지며,
 - 외국인투자통제위원회는 한 달에 3번만 회의를 개최하고, 신청 건수를 7개 이하로 제한하는 등 매각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 ※ (교역) 총 교역량은 감소추세, '23년 대러시아 수출은 회복세, 수입은 감소세
- ※ (투자) 신규투자 미미, 기존 진출기업은 제한적 비즈니스 지속, 일부 품목 호황
- ※ (협력유망분야) 자동차·의약·조선·기계설비 협력 가능, 주요 자원의 대체 공급선

가. 교역

▣ 한-러 교역 현황

- (총 교역) 대러 수출 제재와 금융·물류·외교 등 복합적인 이유로 양국 교역량은 '22년부터 감소하였으나 비제재 품목을 중심으로 대러 수출은 일부 회복세, 무역수지는 '23.1~8월 기준 수입 감소분이 수출 감소분보다 큼에 따라 적자폭 완화
 - '23년 1~8월 기준, 대러 수출은 철 구조물, 자동차 부품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46억 달러를 기록, 대러 수입은 LNG, 어류 등의 수입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40.5% 감소한 64억 달러를 기록

〈2016-2023.8월 한-러 교역〉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8
수출	47.6	69.0	73.2	77.7	69.0	99.8	63	46
(증감률)	(1.8)	(44.8)	(6.0)	(6.2)	(△11.2)	(44.6)	(△36.6)	(18.5)
수입	86.4	120.4	175.0	145.6	106.3	173.5	148	64
(증감률)	(△23.6)	(39.3)	(45.4)	(△16.8)	(△27)	63.3	(△14.6)	(△40.5)
무역수지	-38.7	-51.3	-101.8	-67.9	-37.3	-73.7	-85	-18

자료 : KITA, GTA

▣ 대러시아 수출

- (증가요인) '22.1-8월 기준, 대러시아 총 수출액은 기 체결 계약의 진행, 비제재 품목의 수출 증가, 제재 품목 중 상황허가 취득 후 일부 수출 지속 등으로 18.5% 증가

- 철구조물: 과거 수주한 선박건조·건설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증가(기 체결 계약) (93.6%)
- 자동차부품: 비제재 자동차 부품류 및 A/S 부품 수출 지속, 수출 감소폭 완화 (△66→△23.6)
- 건설중장비: 러시아 건설 수요 증가 및 상황허가 제품 수출로 수출 증가 (39.9%)
- 화장품: 전통적 수출 호 조품목으로 기저효과 및 한류 영향으로 수출 증가 (60.5%)
- 윤활유, 식품류: 비제재 품목, 서방 기업 등 경쟁기업 철수에 따른 시장 대체효과, 제재 학습효과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교역 활성화로 수출 증가

〈2022년 대러 10대 수출 품목〉

품목명	금액 (백만 달러)	전년 대비 증감율(%)
총 수출액	6,328	△36.6
철 구조물	602	23.5
자동차부품	482	△66.0
자동차(가솔린) 1,500cc 초과	481	△73.2
건설중장비	314	△8.6
자동차(디젤) 2,500cc 이하	303	△50.3
윤활유	229	116.7
기초화장품	221	△3.2
플라스틱 제품	153	△12.1
선박류	133	5.8
의료기기	130	28.2

〈2023년 1-8월 대러 10대 수출 품목〉

품목명	금액 (백만 달러)	전년 대비 증감율(%)
총 수출액	4,604	18.5
철 구조물	571	93.6
자동차부품	271	△23.6
건설중장비	269	39.9
자동차(디젤) 2,500cc 이하	232	36.2
윤활유	225	133.0
기초화장품	217	60.5
자동차(가솔린) 1,500cc 초과	202	△35.1
운반하역기계	176	138.7
플라스틱 제품	106	0.2
금속절삭가공기계	102	409.8

자료: 무역협회(MTI 6단위 기준)

▣ 대러시아 수입

- (감소요인) '22.1-8월 기준, 대러시아 총 수입액은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에 따른 에너지·수산물 수입 감소 등으로 40.5% 감소
 - LNG 등 에너지: 우리나라의 대체선 발굴(카타르, 호주 등) 및 발전 공기업의 석탄 대러 수입 중단(23.9), 물류&금융 불안정에 따른 대형 상사의 활동 위축으로 감소
 - 수산물: 대체 공급선 발굴(캐나다, 노르웨이), 대형 선사들의 보험증권 미발행, 일부 품목에 우리나라의 대러 제재 동참(미국의 대러 수산물 수입 금지) 등으로 약 40% 감소

〈2022년 대러 10대 수입품목〉

품목명	수입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감율(%)
총 수입액	14,817	△14.6
유연탄	5,044	128.9
원유	2,314	△45.8
나프타	1,594	△63.6
LNG(액상천연가스)	1,481	△13.7
무연탄	643	77.3
계	472	4.2
알루미늄괴	408	35.0
명태	344	38.9
우라늄	184	△26.7
고철	173	△35.3

〈2023년 1-8월 대러 10대 수입품목〉

품목명	수입금액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총 수입액	6,370	△40.5
유연탄	3,153	9.2
LNG(액상천연가스)	657	△36.3
알루미늄괴	470	69.0
무연탄	349	△29.6
계	257	△15.6
우라늄	166	0.0
고철	94	△34.7
명태	91	△64.0
목재류	80	125.1
기타어류	71	△42.5

자료: 무역협회(MTI 6단위 기준)

▣ 성공사례 1 (K-pop 굿즈)

한류 저변을 활용한 수출성과 달성

[지원과정]

- K-pop과 관련된 다양한 굿즈를 수출 중인 A사는 무역관에서 발굴한 바이어와 비즈니스를 원활히 진행 중으로 K-pop 앨범과 응원봉을 꾸준히 납품 중
- 모스크바 무역관 직원은 바이어 발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지원과 함께, 대러 제재로 인한 송금 문제로 바이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으로 송금이 가능한 은행을 수시로 바이어에게 정보 제공함

[지원결과]

- '23년 상반기 러시아 바이어의 방한 이후 '23년 5월부터 5차례 이상에 걸쳐 약 15만 달러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비제재 품목으로서 러-우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향후 파트너십의 지속적 확대 기대

▣ 성공사례 2 (생활 소비재)

서방기업 철수에 따른 틈새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

[기업 현황]

- B사는 1999년 설립, 치약·비누·세제 등 생활 소비재를 제조, 유통하는 회사로 해외 수출량이 많지는 않으나 러시아 등 CIS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지원과정]

- 무역관에서는 '2022 소비재 수출대전' 참여 바이어 지속 관리를 통한 생활용품 관련 인콰이어리를 꾸준히 축적,
 - 바이어 C사는 당초 식품(음료)만을 취급하던 업체였으나, 서방 기업 철수에 따른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세제·섬유유연제 공급업체 물색
- 2022년 12월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대체수요 발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무역관 지원 기업인 섬유유연제 수출기업 C사와 화상상담을 주선,
 - 지사화 사업을 통해 교신을 지속 지원, 바이어가 다른 사업체를 통한 수입을 희망하는 등 여러 거래 조건의 변화가 있었지만 시기 적절한 대응 지속

[지원결과]

- '23년 4월 섬유유연제 약 1만 달러 수출 달성
- 수입된 제품은 극동 러시아 대형 슈퍼체인 중 하나인 Samberi를 포함,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로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나. 대러시아 투자

▣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진출 현황

- (투자액) '21년 말까지 누계액 약 31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0.41% 수준, '22년 신규 투자액은 러-우 사태의 여파로 전년 대비 54.6% 감소한 5,900만 달러를 기록, '22년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0.08% 수준
- (투자분야) 제조업('22년, 57%)과 도소매업('22년, 12%)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보통신업 및 농림업도 일부 존재, '23년도에는 신규법인 설립 10개 내외로 추정
 - * K사는 '22.3월에 블라디미르주에 '김' 제조시설에 투자, 연간 100억 원의 매출 달성하는 등 비제재 분야에서의 일부 기업 신규투자 활동 지속

〈연도별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분야별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금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신규법인 수	투자금액	세계비중	분야	'20	'21	'22	
							금액	점유율(%)
1990	2	19	1.6%	제조업	13	102	34	57%
(중략)				농업·임업·어업	29	4	1	1.7%
2019	29	99	0.15%	부동산업	1	2	0	0%
2020	15	105	0.18%	도소매업	11	8	7	11.9%
2021	23	130	0.17%	정보·통신업	0	0	1	1.7%
2022	6	59	0.08%	운수·창고업	1	-	0	0%
전체	657	3,084	0.41%	합계	105	130	59	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대러시아 투자 진출 한국기업 현황 (총 142개, '23년 상반기)

- (진출 형태) 법인(86개)*, 지사(20개), 대표사무소(16개), 기타(20개)
* 생산법인: 26개, 판매법인: 29개, 서비스법인: 31개
- (업종) 제조업(41개), 도소매업(33개), 운수·창고업(19개)이 가장 많음
- (진출지역) 모스크바 지역(105개, 비중 73.9%),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24개, 16.9%), 블라디보스토크 지역(12개, 8.5%), 노보시비르스크 지역(1개, 0.7%)
- (최근동향) 비제재 품목인 식품·화장품·담배·도소매업종은 정상 영업 중이며, 제재 품목·항공·금융업종은 카자흐스탄, 두바이 등 제3국으로 기능을 이관하거나 제한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 중

〈러 투자 진출 한국기업 현황〉

(단위: 개 사)

진출형태		개 사		비중	
법인	생산법인	86	26	60.5%	18.3%
	판매법인		29		20.4%
	서비스법인		31		21.8%
해외지사		20		14.1%	
연락사무소		16		11.3%	
기타		20		14.1%	
합계		142		100%	

자료 : 코트라 모스크바무역관

▣ 투자 진출기업 비즈니스 동향

구분	품목	주요 현황
애로다대	자동차	러시아 내 공장 가동 축소, 비제재 부품 및 A/S 부품 위주로 제한적 비즈니스 운영, 공장 매각 검토 중('23.10월)
	전자제품	러시아 내 공장 가동 축소, 일부 품목만 제한적으로 생산 중, 제3국으로 우회수입되는 물량의 경우 가격경쟁력 다소 하락
	항공·물류	직항노선 잠정 중단, 항만·철도 물류는 '22년 대비 상당 부분 정상화됐지만 한국발 물량이 이전 수준으로 많지는 않은 편
비즈니스 지속	식품	기존 인기 식품 판매량 증가, 대금 결제 이슈 외 러-우 사태 영향 미미하여 비즈니스 순항 중
	유탄유	서방 기업 철수로 반사이익 실현, 제재 대상이 아님이 확인된 거래처에만 '민수용'으로 물건 공급 지속
	의료기기	비제재 품목으로 러-우 사태 영향 미미, 일부 대금결제 애로 있지만 전반적 비즈니스 운영에는 문제없음
	기호식품 (담배 등)	기존 제품 판매량 증가, 러-우 사태 특수성이 오히려 특정 제품의 인기에 반영되어, 비즈니스 지속 확대 중
	제과	기존 인기 식품 판매량 지속, 다만 러시아 내 높은 인플레이션 및 수입 물가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압박

다. 협력 유망 분야

※ 품목 다수가 수출 제한 리스트에 속해있고, 러 측의 외국인 투자 제한으로 인해 투자·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나, 포스트 러-우 사태를 미리 대비하고 추후 생겨날 수 있는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 제한 품목을 혼용하여 서술함

▣ 러시아 수입 대체화 정책 활용

- (러-우 사태 후 현황) 국제 제재 강화 기조로 반도체, 선박, 항공기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의 수입 차질을 빚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이전보다 수입 대체화 정책에 집중 중으로, 러 대통령은 “완전한 기술이전의 실현과 현지 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단순 복제 수준 이상의 현지화”를 지시 (23.6월)
 - * 정부지원: 관련 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최저 7%의 금리 대출(10년 상환), 최저 5% 산업 담보 대출 등
 - 수입 대체화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은 ① 로컬 콘텐츠(원부자재, 기자재)의 현지조달 비율과 ② 현지 제조공정(권장 기술 적용, 설계과정 포함 여부, 정부 인증 취득 여부 등)임
- (자동차) 러 정부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철수가 현지 생산화의 기회로 보고, 러시아 (혹은 우호국) 기업으로 하여금 폭스바겐, 닛산, 도요타, 르노, 벤츠 공장을 부분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으나, 현재까진 SKD(큰 단위 부품 조립), DKD(한번 완성된 자동차를 분해 후 재조립) 생산 수준으로, 한동안은 부품 공급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자원 개발 기계설비) 정유 설비(펌프, 압축기, 공기 냉각 시스템, 원심 펌프) 수입 의존도 평균 65%, 천연가스 액화 기계설비 수입의존도 80%로 추산되며, 러 정부는 2024년까지 관련 설비들의 현지 생산화를 추진 중으로 관련 프로젝트들 다수일 것으로 예상
- (조선) 러 정부는 2030년까지 조선 건자재의 70%를 현지 생산화 추진 중으로, 기존 LNG 운반선 생산 수주 외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및 기술협력(기술이전, 합작투자)이 유망하며,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른 쇄빙선 건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의약·제약) 75% 수준의 수입의존도를 2024년까지 47%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관으로의 공급량 부족 우려로 해외 수입 의약품에 대한 등록 절차도 30일 이내로 간소화한 바 있으며(22.4월), 시장 내 한국산 제품을 등록·유통해본 경험이 있는 바이어가 다수로 기술·행정적인 면에서 비교적 진출이 용이

▣ 러 지방균형발전 정책 활용

- (지역균형발전) 러시아는 서쪽으로 치우쳐진 경제·인구 구조를 개선하고자 신동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거점도시에 산업생산시설·자원개발·의료보건시설 구축 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러시아 주요 지방도시〉

구분	특징	협력분야
중부지역 (우랄산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도시: 예카테린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 석유가스, 철, 석탄 등 지하자원 풍부 ▪ 높은 GDP 수준, 중공업, 기계 산업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원개발 ② 의료·보건
서남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도시: 카잔, 사라토프, 크라스노다르 ▪ 식품, 소비재 등 경공업, ICT 등 발달 ▪ 남부지역 기후 온난, 농업 여건 우수, 해상 교통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마트팜 ② 농업·식품가공업
극동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사할린 주 ▪ 한반도, 중국 접경, 항만 물류 활발 ▪ 비교적 적은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선 ② 수산물

- (농업·스마트팜) 기후가 온화하고 관개가 유리하여 곡창지대가 발달한 러시아 남서부지역에는 쌀, 밀, 옥수수, 차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다수 기계와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어 러 정부 주도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농기계 및 스마트팜 진출이 유망

▣ 공급망 다변화

- (희토류) 전기차 부품·반도체용 연마제 제조에 꼭 필요한 희토류의 러시아 매장량은 약 2천 100만 톤으로 추산되며 중국, 베트남, 브라질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채광량은 6위), 값싼 중국산에 밀려 상당 부분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 시장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후 대체 공급처로서 떠오를 가능성 존재
- (요소·요소수) 요소의 원료 중 하나인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21년 요소수 대란 시 대체 공급국으로 떠올랐던 러시아의 요소수 생산은 세계 4위 수준(5.5%)이며, 산업용·비산업용 요소수 생산이 여전히 활발한 만큼 베트남·인도네시아를 잇는 잠재적 대체 공급국

- (니켈) 스테인리스강을 합금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소재인 니켈의 세계 생산량 10%를 차지하는 러시아는 대우호국 니켈 수출을 늘리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Norilsk사 등이 활발하게 활동 중으로 협력 가능성 존재
- (마그네슘) 러시아는 항공기·자동차 부품을 사용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마그네슘의 세계 4위 생산국(2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 중 85%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 잠재적 대체 공급처
 - * 단, 단순 '매장량'과 현재 기술 수준으로 '경제적 채굴이 가능한 물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신수요 발굴 및 협력 가능성 모색이 필요함

Chapter



진출전략



※ 요약: 러-우 사태로 많은 서방 기업들이 철수한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 중. 우리기업은 한류 저변을 활용한 K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그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서방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의 수입대체산업에 부응하여 협력분야를 확대할 것을 검토

한편, 비우호국 지정에 따른 비즈니스 운영 애로 및 대리제재 확대 가능성 등 정치적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보의 모니터링 및 규제 실제 사례의 체크 등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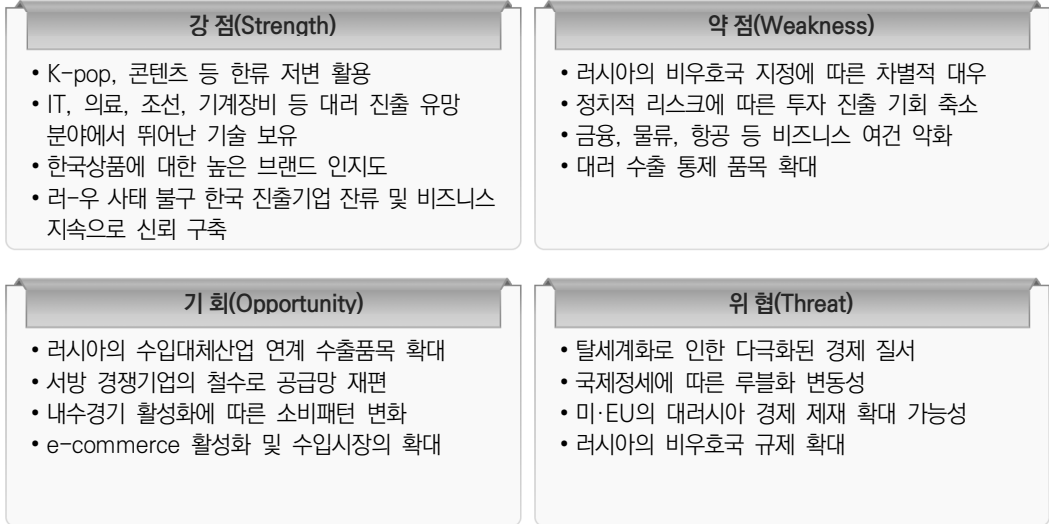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 러-우 사태 지속, G7 vs BRICS 구도 • (제재 대응) 러시아의 비우호국 기업·법인에 대한 보복조치 • (대내외 정치) 내부적으론 정치적 안정, 우호국과 외교·안보 협력 강화 • (수입 대체화) 자국산업 육성 정책 강력 추진, 현지 생산화 목표 • (지역균형발전) 신동방정책 추진·지방도시 내 산업 투자 강화
E 경제 (Econo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 '23년 추정치 대다수 기관 플러스로 전환(0.6%~2.7%) • (기준금리) 지속 인상('23.10월, 15%)에 따른 투자 경직 • (환율) 금리인상·석유가스의 루블화 결제 등으로 방어 중 • (인플레이션) 비교적 높은 수준(7~7.5%)이나 소비는 회복세 • (고용) 군 동원령·비우호국 인력 유출에 따라 실업률 역대 최저(약3%)
S 사회문화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인구) 출산률 감소, 젊은 소비층은 증가 • (소비패턴) 경제회복에 따른 내수 소비 증가 기대, 낮은 저축률 • (대체소비) 서방 제품 철수 시장에 공백 발생, 경쟁구도 재편 • (콘텐츠) 서방 콘텐츠·소셜미디어 공급 중단으로 대체수요 다대 • (웰빙) 건강에 관심 높은 젊은 세대 비율 증가, 관련 제품 소비 증가
T 기술 (Technolog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학) 우주항공·화학 등에서 원천기술 및 고급인력 보유 •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강화, 인터넷 보급률 확대(87%) • (AI기술) 미국 대항 자체 AI기술 개발 위한 예산 대거 투입 • (금융) 대리 제재에 따른 독자적(우호국 중심) 결제 시스템 개발 노력 • (기술이전) 생산기술의 점진적 확보로 생산 현지화 추진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러시아 시장 SWOT 분석〉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0대 신형 여성 소비층 적극 공략 • 한류 확산 K-콘텐츠서비스 진출 강화 • 수입대체산업 연계 품목 수출 확대(기계장비 등) 	<p>한류 활용 문화행사 동반 마케팅 믹스</p>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튀르키예 진출 등 신경쟁구도에 대응, 중저가 제품과의 차별화 품목 발굴 • 현지생산 확대·서비스 품목 강화 등 • 제3국 파트너 활용 송금결제물류 애로 해소 대응 	<p>고급 브랜드 이미지 구축 전략적 포지셔닝</p>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형 플랜트 수주 확대(건설, 조선 분야 등) • 희토류, 니켈, 요소 등 대체 공급망으로 활용 • e-commerce 확대로 소비재 유통망 진출 강화 	<p>경쟁 구도 재편 속 기회시장 선점</p>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의 중앙아·중국 등 제3국 통한 우회수입 활용 • 정책변화 모니터링 탄력 대응 • 투자 진출 기업 리셋 및 U턴 지원 	<p>리스크 단계별 대응 강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각화</p>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구 분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통상질서 변화 속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의 병행수입 및 제3국 우회수입 전략적 활용 ○ 소비재, 자동차, 기계류, 의료기기 등 비제재 전략 품목 '선택과 집중'
EAEU 중심 공급망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관세 · 인증, 인구 1억 8천만 EAEU 시장 동시 진출 ○ 러시아 우호국(중국, 튀르키예, 인도 등) 활용 제3국 시장 간접수출 확대
한류 활용 마케팅 믹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업 철수 공백에 따른 대체 브랜드 (서비스업 등) 진출 ○ 주요 서방 콘텐츠 공급 중단에 따른 K-콘텐츠 대체 수요 증가
플랫폼 비즈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 수출 품목 수요 확대에 따른 틈새 기회 발굴 ○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주요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진출
소비시장 및 경쟁구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방 기업 공백 시장 중 비제재 품목(의류, 가구, 의약품 등) 위주 진출 ○ 건강기능식품, 고급 화장품 등 소비 트렌드 반영 신흥경쟁국과 차별화 ○ 구매력 회복세, 2·30대 신흥 여성 소비층 적극 공략
대러제재 장기화 및 신통상질서 과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외교) 가치 외교 및 이념 대립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 장기화 ○ (통상교역) 탈세계화 및 글로벌 경제 주도권 다툼, 공급망 질서 재편 중 ○ (문화 인적교류) 비제재 분야로 제한적인 교류가 있으나,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3-1. [소비재] 고급 브랜드로 차별화, 신 소비문화 반영 틈새 품목 기획 발굴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러-우 사태 영향 미미, 경제회복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시장규모 꾸준히 확대
- 역동적인 소비 패턴 보이는 젊은층을 사로잡을 기회가 많으며, 온라인 플랫폼도 가파른 성장세
- 루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저하, 라벨링 의무제도 등 비관세 장벽은 애로사항

▣ 경제회복과 내수 활성화

- '23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활필수품이 다수 속해있는 소비재 분야에서는 뚜렷한 소비 회복세 관찰,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젊은층의 소비 확대도 소비재 수출시장에 긍정 신호

▣ 화장품

- (현황 분석) '22년 러시아 화장품 시장 규모는 22억 7천만 달러로, 최근 3년 평균 24억 달러의 대규모 시장, 러-우 사태 이후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가 철수함에 따라 경쟁구도 재편 진행 중
 - * LVMH(프랑스), 에스티로더(미국), 로레알 그룹(프랑스), P&G(미국), 유니레버(영국) 등
- (진출방향) K-Beauty 제품은 기초화장품에 품목이 집중되어 있고, 중저 가격을 앞세워 젊은 층에 인기가 집중 되어있는 상황으로, 응용화장품(색조화장품, 향수 등) 진출과 고급 브랜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
 - * 향수 시장은 화장품 시장의 15.2%(3위)를 차지하며, 러 여성 96%가 꾸준히 지출하는 큰 시장

▣ 식품

- (현황 분석) '22년 러시아 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1.6% 성장한 2,052억 달러,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의무 라벨링(체스닉즈낙)' 제도로 거의 모든 종류의 식품류에 원산지, 유통과정 등이 식별 가능한 고유 코드를 부착해야 함

- (진출방향) 대형유통망 위주로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고, 루블화 가치하락에 따라 가격 경쟁력 보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인기 품목인 라면·김·소스류·밀키트 제품을 기반으로 품목의 점진적 확대 추진

▣ 애완동물용 사료

- (현황 분석) 시장 규모 37억달러, 러시아인의 72%가 반려동물을 키우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가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관련 소비는 꾸준히 증가 전망
- (진출방향) 대부분의 제품이 오프라인에서 소비되므로 전문 소매점(Miratorg, Private Label 등) 집중 타겟, 고양이용 사료(전체 시장의 70% 차지) 위주 진출 검토

3-2. [보건·의료] 수입의존도 높고 새로운 경쟁구도 하에서 시장 진출 심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보건·의료 분야는 대러 비제재 대상으로 진출 제한이 적은 편
- 미, EU 기업 이탈 등으로 러 정부의 제약 산업 육성 정책 의지 강화
- 인구 고령화, 생활수준 향상 및 의료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러시아 보건의료 시장 지속 확대 전망

▣ (현황 분석) 제약, 의료는 대러 비제재 대상이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 (의료기기)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약 1.5% 비중, 현지 제조 육성·수입 대체화 정책으로 '24년까지 수입의존도 75% → 47% 목표
 - * 러 산업통상부는 '22년 5월 외국 의료 장비에 대한 국내 의존도를 '24년 47%, '30년에 20%로 낮추는 과제를 선언
- (제약분야) 제약 분야에서도 러시아는 세계 3위의 매력적인 시장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 이후 EU, 미국, 영국 등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급감
 - * 러시아 수입 의약품 중 70%는 EU, 미국 및 영국 등 비우호국에서 수입

▣ (진출방향) 러시아 수입대체 정책에 맞추어 ‘현지 생산기술 이전’,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협력’ 등 가능성 검토

- (기존품목 수출지속) 치과용 X-Ray, 특수목적용 주사기, 초음파 영상진단기 등 유망 품목을 수출 지속하는 한편, 신속한 A/S 제공 및 금융·물류 애로해결을 위한 파트너서와의 적극 협력을 통한 기존 거래선 유지
- (생산기술이전)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생산기술을 러시아 측에 이전하여 협력하는 방안
- (백신·치료제) 인구 고령화와 의료 복지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에 맞춰 항암 치료제·심장혈관계 보조치료제 등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상품 수출 검토
- (의료 낙후지역 타깃) 러시아의 의료 낙후지역 의료복지 개선 정책과 함께 지방 거점에 투자 합작 병원 설립, 원격진료 서비스 등 진출 검토

〈참고: 러시아 제약산업 정책 및 현황〉

- 러시아 제약산업 자본 투자 진출
 - ▶ 러 제약산업 취약성: 높은 필수 의약품·원료 수입 의존성, 제조설비 노후·부족, 서방 경제 제재에 따른 유럽·미국 기업 진출 협력 부진, 패키징 등 상용화 기술 부족
 - ▶ 기술은 존재하나 투자 유치 및 상용화에 약해 설비투자 등 부분적 진출도 고려 대상
- 러시아 진출 리스크 헷지를 위한 컨소시엄 형태 진출
 - ▶ 단독 진출 시 법적·기술적·재무적 3대 리스크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 리스크 분담·관리할 수 있는 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 고려

3-3. [콘텐츠]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중단으로 대체 수요 다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대러시아 물리적 상품 수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로 주목
- 미국·유럽의 대러 콘텐츠 공급 중단과 현지 한류와 맞물려 대러시아 영화, 드라마, 웹툰, 이모티콘 등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 가능성 기회 성장
- 불법 스트리밍 만연 상황은 애로사항, 정식 수출 루트 타진 통한 무형 상품의 유료 가치화

▣ (현황 분석) 대러 제재 강화 및 송금, 물류 등 사업환경 변화로 어려워진 물리적 상품 수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콘텐츠 수출이 대안으로 주목

- (OTT) 러시아 현지 언론 R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2분기에 러시아 OTT 플랫폼 대형 3사의 '한국 콘텐츠 점유율'은 전년 대비 급속도로 성장
 - * ivi(260개, 40% ↑), Okko(246개, 38% ↑), Kinopoisk(198개, 25% ↑)
 - * 과거 '오징어 게임'은 러시아 넷플릭스 인기 순위 2위 차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도 열풍

▣ (진출방안) Netflix, Disney, Sony 등 서방 대형 콘텐츠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내 콘텐츠 수급 부족과 한류 확산이 맞물려 우리 관련 기업들의 수출 기회 증가

- ivi, Okko, Kinopoisk 및 VK Music, Yandex Music 등 자금력이 있고 국외 외화 송금이 가능한 러시아 대형 OTT 플랫폼 및 음악 스트리밍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 콘텐츠 수출 또는 관련 장비·기술 관련 협업 가능
 - * 대형 OTT 플랫폼의 경우 해외에 법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송금 애로 적을 것으로 기대
- Yandex games, VK Play 등 러시아 내 자체 멀티플레이어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을 대상으로 게임 콘텐츠 수출 또는 외국 게임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기업(러 Innova games 등)과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진출 검토
 - * Innova: AION, Lineage 2 등 다수의 한국게임을 러시아 시장에서 퍼블리싱

▣ (저작권 보호) 러시아 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관련법 및 규정 등이 모호해 기업 자체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어려움 발생

- 러시아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형 포털사이트·미디어그룹·유관 기관(Roskomnadzor)이 공동 체결한 ‘anti-piracy memorandum’을 ’23.9월에 개정하고 보호 대상 분야에 출판·음악 스트리밍을 포함시키는 등 전반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
- (대응방안) 러시아 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 시 러시아 현지 전문 변호사를 통한 경고장 발송, 저작권 전문 법원에 민사 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 가능
 - * 러시아 법원의 최근 판례에 따르면, ‘비우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분야에서 법리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음

3-4. [비제재 기계류] 러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으로 산업전반 수요 증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3.1-8월 금속절삭가공기계(410%), 건설중장비(40%), 운반하역기계(138%) 대러 수출 증가
- 제재/비제재 품목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품목의 전략적 선택 필요
- 바이어 반응, “품질과 A/S가 중요한 만큼 기존 제품 쉽게 바꾸기 어려워”

▣ 일반기계류

- (현황 분석) 금속절삭가공기계의 ’23.1-8월 대러 수출은 1억 달러로 대러 수출 상위 품목 10위 기록, 고난도 정밀성 요구하는 품목 특성상 가격보다는 품질 우선시, 공작기계 등 수출금지품목, 상황허가 대상 품목, 비제재 품목 혼재
- (진출방향) 기존 바이어를 지키기 위한 신속한 A/S 제공 및 물류·송금 애로 해결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서방 공급이 끊긴 수요처를 집중 타겟하고, 상황허가 판정 대상인 경우 ‘미국 제재 리스트에 거래처 포함 여부’, ‘최종 소비자 확인 서류’, ‘제품 구성도’ 등 사전확인 필요

■ 건설작업기계·운반하역기계

- (현황 분석) 주택,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와 다수 국가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크레인 등 특수작업기계 수요 증가
 - *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7개 건설계획, 야말지역 철도 인프라 건설(2027), 무르만스크 LNG 공장 가스관 건설(2024), 모스크바 도로 인프라 개발('24-'26년 걸쳐 265km 신규 도로 설치 예정) 등
 - 최근 2년간 러시아의 동 작업기계류 수입은 32.2% 증가, 같은 기간 대한 수입은 61.2% 증가해 한국의 점유율 약 68.7% 기록
 - * 러시아의 전체 수입액: ('20년) 8700만 달러 → ('21년) 1억 1100만 달러 → ('22년) 1억 1500만 달러
 - * 러시아의 대한 수입액: ('20년) 4900만 달러 → ('21년) 5300만 달러 → ('22년) 7900만 달러
- (진출방향) 인프라 건설·재건 주요 프로젝트 발주현황 모니터링, 기낙찰한 주요 시공사 대상 납품 가능성 모색, 러시아 건설사 협회·특수 기계 장비 생산자 협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위한 한국 공관 플랫폼 활용
 - * 러 산업부는 생산시설 매입, 건설, 장비현대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에게 특별 저금리 대출 시행('23.2월)

대러시아 기계류 관련 수출기업 A사

- 러-우 사태 이후, 기계류 강국인 독일·일본 기업 다수가 철수함에 따라 시장 공백 발생
- 품질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가격만 저렴한 제품을 택하지 않음
- 러시아의 수입대체정책에 맞춰 수요가 늘어나는 중으로, 협력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3-5. [자동차·자동차부품] 자동차산업 공급망 재편 과도기로 기회품목 발굴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은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 2-3위국, 러시아 내 신차 공급 부족에 따라 중고차 수요 증가
- 새로운 시장형성기를 맞은 러시아 유탄유 시장에서는 브랜드 진출 가능

▣ 중고차

- (현황 분석) '22년 기준, 러시아의 중고 승용차 수입 규모는 25만 대*로 최대 수출국은 일본(15만대 추산)이며 한국은 약 2만 대를 수출해 2위를 차지, 러시아 내 완성차 공장 가동 중단 영향으로 중고차 수요가 크게 증가
 - '23.1-9월 러시아 내 중고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증가한 433만대로, 라다(93만대), 토요타(51만대), 기아(24만대), 현대(24만대), 닛산(22만대) 판매
 - * 단, 5만 달러 이상의 중고차는 대러시아 수출 제한 품목
- (진출방향) 일본이 1900cc 이상 중고차의 대러 수출을 금지('23.8월)함에 따라 발생한 시장 공백을 집중 타깃, 바이어들은 중고차 수입 시 추후 A/S 부품 공급을 우려하므로 호환 부품 정보나 러시아 내 A/S 부품 공급처 정보 제공
 - 필요에 따라 러시아의 제 3국(키르기스스탄 등) 우회 수입 정책도 활용 가능

▣ 자동차 부품

- (현황 분석) 현대·기아차의 현지공장 생산 중단의 영향으로 자동차부품의 '22년 대러시아 수출은 '21년 대비 65.6% 감소한 5.2억 달러에 그쳤으며, 필터·베어링 등 공용 부품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 제품과 경합 중
- (진출방향) 수출 제한 품목이 아니면서 벤더사에서 비교적 쉽게 취급이 가능한 '브레이크 패드, 램프, 액세서리' 위주 집중 검토, 자동차 A/S 시장 성장에 따라 등장한 '프랜차이즈 정비소'에 일괄 납품 시도
 - * 제한 품목 중에서도 탑승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A/S 부품은 확실한 수요가 예상되므로, 당국의 판단에 따라 상황 허가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성 有

▣ 자동차 윤활유

- (현황 분석) 서방 제품의 철수에 따라 '22년 우리나라의 대러 윤활유 수출은 2.2억 달러로 전체 수입시장의 30% 차지했으며, 프리미엄 등급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윤활유는 고품질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중
- (진출방향) 새로운 브랜드들이 등장하는 신경쟁구도에서 유통망을 갖춘 러 기업에 OEM 형태로 수출 검토, 기존 거래선을 보유한 전문 무역상사와의 협업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자동차 유탈유	선정사유	최근 수출 증가로 '22년 대러 수출 6위 기록
	시장동향	서방 글로벌 브랜드의 철수로 공백 발생
	경쟁동향	한국·튀르키예 및 러시아 현지 브랜드 경쟁
	진출방안	프리미엄 등급으로 차별화 전략, OEM 수출 검토, 전문 취급 딜러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 등 타깃
품목명		
임플란트	선정사유	한국은 대러시아 임플란트 수출 1위국
	시장동향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시장 규모 확대 전망
	경쟁동향	3M 등 서방 기업들이 제품 공급 중단, '22년 대미 수입은 58% 감소한 반면 대한 수입은 14% 증가
	진출방안	좋은 한국 제품 이미지 활용, 관련 유망 자재인 치과용 의료기기·기자재와 패키지 수출 시도
품목명		
중고차	선정사유	대러 전통 강세 품목으로 수출 가능성 여전
	시장동향	러시아 내 신차 공급 부족으로 중고차 수요 증가 중
	경쟁동향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중고차 혼재 (*5만 달러 이상의 중고차는 수출 제한 품목)
	진출방안	비제재 중고차 위주 수출, 러시아의 제3국(키르기스스탄 등) 우회 수입 활용
품목명		
철 구조물	선정사유	러시아 건설·선박건조 프로젝트 다수
	시장동향	러시아 정부의 건설업 부흥정책에 따라 건설자재 수요 증가 중, 극동지역에선 선박 건조 계속
	경쟁동향	서방의 공급 중단, 자국산업육성정책에 따라 러시아 및 우호국산 경쟁
	진출방안	기납찰 업체에 부분품 납품, 입찰 참가 위한 공공기관 플랫폼 활용
품목명		
화장품	선정사유	수입시장 13억 달러 규모의 대형 시장으로 전통 강자인 프랑스·미국산 철수가 기회요인
	시장동향	유럽 브랜드와 주로 거래하던 골드애플, 레뚜알 등 대형 화장품 체인점들이 한국 화장품 취급을 확대
	경쟁동향	로레알, 랑콤, 클리닉 등 유명 서방 브랜드 시장 철수했으나, 일부 프랑스·독일 브랜드 인기 지속

	진출방안	기초화장품(마스크팩, 수분크림 등) 위주에서 응용화장품(색조화장품, 향수 등)으로 품목 다양화
품목명		
식품	선정사유	라면, 김, 소스류 등 수출 지속, 좋은 K브랜드 이미지로 수출량 및 품목 확대 가능
	시장동향	러-우 사태의 영향 미미, 경제회복에 힘입은 소비 확대 기대
	경쟁동향	자국산 및 유럽산 등 수입 제품 혼재, 온라인 플랫폼 확대로 다양한 품목 경쟁 중
	진출방안	웰빙 제품, 건강기능제품 등으로 수출 품목 다양화 검토, 의무 라벨링 제도 등 비관세 장벽 유의
품목명		
의료기기	선정사유	대러 전통 수출 강세 품목, 수입의존도 여전히 높고, 한국산 제품 사용률 높음
	시장동향	웰빙·보건에 대한 관심 확대로 수요 여전히 높고, 수요처가 끊어진 바이어는 대체 파트너사 물색 중
	경쟁동향	가격경쟁력 높은 중국산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 러시아는 현지 생산화 적극 독려 중
	진출방안	기존 거래선 지키기, 기진출지역(모스크바, 상트, 노보) 외 극동지역 등 타 지역 수출 검토
품목명		
건강기능식품	선정사유	팬데믹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웰빙·보건에 대한 관심 확대
	시장동향	2018-2022년 기간 중 시장 평균 성장률 18%
	경쟁동향	중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제품 경쟁 중이나 대러시아 제재 영향으로 경쟁 구도 재편 중
	진출방안	주요 서방 기업 제품을 수입 중이던 러시아 주요 수입·유통업체와의 컨택 통해 기존 수입제품 대체
품목명		
(비제재) 기계류	선정사유	대러 수출 전통 강세 제품, 시장 내 한국산 이미지 좋음
	시장동향	물류창고 신설·건설 프로젝트 다수로 수요 유효
	경쟁동향	독일·일본산 철수에 따른 공백 발생, 중국 제품 진출 중
	진출방안	주요 벤더사 집중 타깃, 필요시 선제적 수출허가 취득 준비
품목명		
타이어	선정사유	춥고 긴 겨울의 영향으로 윈터 타이어 사용이 필수적, 타이어 교체 주기도 짧은 편
	시장동향	꾸준한 수요로 시장 규모 약 27억 달러
	경쟁동향	Bridgestone, Michelin, Continental, Pirelli와 같은 유명 타이어 업체들의 비즈니스를 잠정 중단
	진출방안	서방 제품을 주로 공급하던 유통사 집중 공략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콘텐츠	선정사유	한류 인기 지속 확대, 수출 체계화시 무형 물품의 유로가치화 가능
	시장동향	서방 OTT 플랫폼 철수에 따라 자국 플랫폼 활성화
	경쟁동향	자국 콘텐츠 강화노력, 불법 사이트 여전히 활발
	진출방안	OTT 플랫폼과의 정식계약 체결 및 저작권 등록으로 정식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
품목명 2		
(대형 온라인 유통망 대상) 물류 서비스	선정사유	온라인 유통망 지속 성장, 인터넷 인구 증가
	시장동향	일부 물류기업 철수했으나 물류공급은 원활
	경쟁동향	4-5개 러시아 주요 온라인 유통망 활발한 경쟁 중
	진출방안	현지 진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또는 특정품목 타겟으로 대형 유통망과 첫 거래 시도
품목명 3		
게임	선정사유	러시아 내 게임 수요 지속 증가 및 형태 다양화
	시장동향	글로벌 게임사(EA Sports, CD Projekt, MS 등)의 대러시아·벨라루스 판매중단 혹은 신작게임 발표 보류 등으로 비즈니스 축소 중
	경쟁동향	Yandex Games, VK Play 등 플랫폼 대기업들이 게임시장에도 진출 확대 중
	진출방안	외국기업 전문 유통업체(러 Inoova games 社) 등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출 검토
품목명 4		
선박 수리 서비스	선정사유	어선 등 선박 노후도가 높으며 대리제재로 관련 선박 기자재의 현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시장동향	극동 지역에 슬라반카, 나호드카 등 주요 선박 수리 조선소가 있으나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약 40% 정도
	경쟁동향	러시아 선박 수리소의 기술 부족으로 선주들이 선박 상당수를 한국, 중국 등으로 보내 수리
	진출방안	중소 조선소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로 선박 유치, 서비스 자체를 패키지로 수출 검토
품목명 5		
폐기물 처리	선정사유	연방 프로젝트 '시립 고품 폐기물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시행에 따라 관련 인프라 도입 필요성 증가
	시장동향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등에서 쓰레기 분리·고형 폐기물 처리·재활용 공장 구축 프로젝트 추진 중
	경쟁동향	공공 중심의 투자 및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나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도 검토 중
	진출방안	폐기물 처리 기술·노하우 전수,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 토지·세제 혜택 활용하여 시설 구축·운영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종합	러시아 수출중단기업 수출 재개 지원 사업	연중 / 블라디보스톡
	DX 기반 대체 수요 발굴 및 수입선 전환 지원 사업	연중 / 블라디보스톡
자동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수출상담회	연중 / 상트페테르부르크
2차전지	이차전지 수출 확대 및 프로젝트 수준 위한 토털 마케팅 사업(가칭)	연중 / 모스크바
소비재·K-뷰티	2024 화성시 러시아 소비재 통상촉진단	4월 /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2024 러시아 소비재 통상촉진단	6월/모스크바
	신규 수출기업 극동 러시아 테스트마케팅 지원 사업	2~3분기 / 블라디보스톡
	2024 K-뷰티+ 대형유통망 협업 사업	2-4분기/모스크바
	2024 유라시아 K-콘텐츠 확대 지원 사업	2-4분기/모스크바
	KOREA DAY 연계 극동 러시아 K-소비재 판촉 페스티벌	3분기 / 블라디보스톡
	CIS 한국 우수식품 무역사절단	9월/모스크바(잠정)
	유통망 협업 판촉전	10월 / 상트페테르부르크
	InterCHARM 전시회	10월 / 모스크바
농수산물·식품	극동 러시아 유력 식품 유통망 인콰이어리 대응 입점 지원 사업	1~2분기 / 블라디보스톡
	식품 유통망 입점 및 테스트마케팅	연중 / 상트페테르부르크
	Seafood Expo 연계 상담회	9월 / 상트페테르부르크
의료	Dental Expo 2024 전시회	12월/모스크바
스마트팜	한-러 스마트팜 상담회 및 웨비나	3분기/모스크바
컨택코리아	모스크바 해외 취업 설명회 및 박람회	6월 / 모스크바

첨부 4**'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제8대 러시아 대통령 선거	2024.3.17.	
러시아 단일 투표일 (19개 연방 주지사·공화국 수장 선거)	2024.9.8.	국회의원(하원) 보궐선거 동시 진행
브릭스(BRICS) 정상회의	2024.10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2024.6.5.-6.8.	러 대통령 참석(잠정)
동방경제포럼(EEF)	2024.9월	러 대통령 참석(잠정)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Prodexpo International Exhibition 2024 (국제 식품 전시회)	2024.2.5.-2.9.	- 모스크바 - 부문: 식품 - 품목: 식료품
MosBuild (건축 마감재 및 기술 전시회)	2024.4.2.-4.5.	- 모스크바 - 부문: 건축 - 품목: 건축 마감재
Metalloobrabotka 2024 (금속 가공 전시회)	2024.5.20.-5.24.	- 모스크바 - 부문: 금속 - 품목: 가공기계·부품
Expoelectronica 2024 (국제 전자부품, 모듈, 시스템 전시회)	2024.4.16.-4.18.	- 모스크바 - 부문: 전자 제품 - 품목: 전자부품
Intercharm 2024 (2024 국제 화장품 전시회)	2024.4.15.-4.17.	- 모스크바 - 부문: 뷰티 - 품목: 화장품
Neftegaz 2024 (국제 '석유 및 가스' 산업 장비 및 기술 전시회)	2024.4.15.-4.18.	- 모스크바 - 부문: 광물 자원 - 품목: 가공 장비 등
Dental Expo 2024 (2024 치과장비 엑스포)	2024.4.22.-4.25.	- 모스크바 - 부문: 치과산업 - 품목: 덴탈 장비 등
MIMS Automechanika Moscow 2024 (2024 자동차·자동차부품 전시회)	2024.8.19.-8.22.	- 모스크바 - 부문: 자동차산업 - 품목: 자동차, 부품
2024 Intenational Exhibition 'AgroprodMash Expo' (식품 가공산업 장비·기계·원료 전시회)	2024.10월	- 모스크바 - 부문: 농업 - 품목: 식품가공기계

〈작성자〉

연번	작성자	작성자	소속	Tel	Email
1	황중석	과장	모스크바 무역관	070-7001-0588	hjskotra@kotra.or.kr

2024
러시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